



## 머리글

미리암 수녀 /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 밤은 구원의 때이다.

스페인어 성무일도 2주간 화요일 저녁 기도 중 좋아하는 찬미가 있는데, 한국어 성무일도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듯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람과 이어지는 역사를 밤은 방해하지 않는다, 밤은 구원의 때이다.” 이어서 그 찬미가 주님과 관련된 사건 기도로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부활, 구약성경 사무엘 하느님과 첫 만남, 이스라엘 탈출, 등.

아르헨티나 시골에서는 개를 많이 키웁니다. 누군가 찾아오게 되면 개가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개는 들판에 일하러 가는 주인을 따라 나갑니다. 밤에도 개들은 주인과 함께 집으로 들어와서 가구 밑에서 잡니다. 시골의 밤은 매우 어둡습니다. 밤에 일어나야 한다면 개를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밝힌 개는 물거나 짖어서 온 가족을 깨울 수 있습니다. 마메르토 메나파스 신부님 (아르헨티나 출신)은 강아지와 시골의 밤 비유로 좋은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사람의 자신 내면 안에도 숨겨진 강아지가 짖기도 하고 물 수도 있습니다. 어둠과 내면의 강아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며, 소리 내어 짖으며 아파하는 내면의 강아지를 알아내서 도움이 되지 않은 습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픈 추억, 죄책감 등으로 표출되는 것들인지 즉, 어렸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무언가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무의식적으로 약속했지만, 어른이 된 현재 까지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면서 현재까지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빛으로 채우도록 초대합니다.

우리에게도 밤은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노력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 작업 하나 추천 : 자기 자신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 있으면(삶은 사람, 함께 있기 힘든 사람 등) 생각해봅시다.

- 첫째 :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이름 쓰기, 기도하기)
- 둘째 : 왜 그 사람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기.
- 셋째 : 그 사람의 삶은 모습을 보면서 나에 대해 무엇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지 알아보기  
(어렵고 힘든 상대의 모습은 거울처럼 삶은 나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 8,12)

##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30차 이사회



2월 16일(금) 명동 교구청에서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30차 이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사, 감사들과 2023년 결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신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쁨과희망은행 워크숍



2월 19일(월) 교정사목센터에서 기쁨과희망은행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과희망은행 2024년 사업 분야 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교육과 지원으로 많은 대상자가 사회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3월 4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송정섭 시몬 부위원장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송정섭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에서 복음의 가르침과 나의 기대가 충돌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성지에 가서 큰 은총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그 성지의 순교자들이 겪었던 고초는 피하고 싶어 진다”라며 “세상의 흐름과 복음의 가르침 사이에서 흔들리며 사는 우리지만, 그렇기에 서로를 다독여주고 담장 안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장산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3월 9일(토)~10일(일) 우장산성당에서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교정사목의 신부님들은 강론을 통하여 교정사목의 활동을 소개하며, ‘처벌’보다는 ‘사랑’이 더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후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우장산성당 주임 신부님과 부주임 신부님, 그리고 신자분들, 더불어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설립 54주년을 맞이하여  
장기봉사자들의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20년



공지영 마리아 / 서울구치소 최고수

실은 봉사 하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봉사를 받은 것은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하느님이 그분의 모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쁜 순간들이었습니다.

유정희 가브리엘라 / 서울구치소 최고수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 (시편 2:12).  
최고수 형제들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20여 년이나 흘렀네요. 제가 평생 해온 악기로 연주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그 연주를 통해 하느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처음엔 형제들의 경계하던 눈빛도 미사 중에 찬양과 연주, 묵상 나눔을 통하여 선한 눈빛으로 바뀌어 서로 공감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 최고수 형제들, 봉사자들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최숙경 카타리나 / 서울구치소 여사

찬미 예수님!  
현재는 그만두신 신옥순 엘리야 자매님 소개로 서울구치소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이 안에 계신 수용자들의 외로움과 봉사자들을 기다린다는 말에 하느님의 부르심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벌써 20년의 세월이네요.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며, 성찰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스테파니아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원을 처음 갔을 땐 어색함, 그 자체였습니다. 7~8명이 모여 오손도손 다채로운 활동을 하며 언니처럼, 엄마처럼 담소를 나누기도 했던 세월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웃기도 하고 뿌듯함에 감사하며 함께한 세월이 주름살도 점점 늘어가네요. 30대 후반에 봉사활동을 했던 나는 50대 후반이 되었고 어색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분류심사원 아이들과 그저 함께했을 뿐인데 뒤돌아보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여 저는 늘 함께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분이 완성할 수 있도록, 건강이 허락하는 그 날까지 예수님의 도우미가 되고 싶습니다. 미약하지만 했던 저를 이끌어 주시고 허락해주심에 감사합니다. ^^ 아멘.





**이동선 히야친타** / 서울구치소 여사

주님께서 불러주신 교정사목 봉사 10년, 천 일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는 날까지, 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엔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가 늘 그렇듯이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구은희 임마꿀라따** /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10여 년 전 저는 주변인의 권고로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봉사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정시설에 들어설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제 눈빛, 혹은 스치는 말 한마디와 태도에서라도 그들에게 상처를 줄까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교정시설에 봉사자로서 나서는 것은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10여 년의 세월로 구치소 봉사를 다니며, 재소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시나브로 깊어져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미사 때마다 구치소 수감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봉사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최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정미 체칠리아** /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미사 만주 봉사로 시작하여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하상 바오로 성가대’와 함께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항상 형제들이 보여준 희망으로 제가 위안을 받아왔고, 봉사 때마다 지치지 않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백윤미 임마누엘라**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봉사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문득 그 첫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설렘반 두려움반으로 찾아간 첫날 청소년들 앞에 서서 무슨 인사를 할까 고민하는데 불현듯 저도 모르는 사이 열일곱의 제 가슴에 심겨졌던 사랑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은 기쁨과 감사로 바뀌며 저는 이 청소년들에게 작은 사랑의 씨앗 하나 심겨두고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저에게 하셨듯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시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정석 보니파시오 / 법인 이사**

제가 교정사목위원회와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1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신부님들과 봉사자분들의 열정만큼은 변한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지난달, ‘빛의사람들’ 소식지에 실린 송정섭 시몬 신부님의 글 중 ‘십자가를 지고 가면 고통이 되지만 십자가를 안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김양희 마리아 / 법인 이사**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1 코린 15.10).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 주님께서서는 언제나 저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저의 인도자가 되시어 모든 일에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교정사목과 함께한 어제와 오늘이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수용자분들과 봉사자분들께 하느님의 축복과 자비가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김성일 에라스도 /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장**

+ 찬미 예수님.

봉사활동은 하느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심어주었습니다. 제 개인의 영적 성장에도 크게 기여한 사회교정사목 봉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의 기쁨과희망을 전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길수 프란치스코 /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12년 전 퇴직을 앞두고 교정사목 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지금까지 출소자들에게 사회복귀 후 재기할 수 있게 작은 재능기부를 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생태계는 일반인들도 성공하기가 어려워, 경험이 없고 자금이 부족한 출소자에게는 더욱 쉽지 않아 사회복귀 후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나아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희망은행과 사무국 직원들, 봉사단체에서 함께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 무엇보다도 큰 버팀목인 일반신자들의 후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 찬미 예수님

신부님 이하 봉사자님들 건강하게 잘 계시지요?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무척 멀게만 느껴집니다.

서울에서는 많은 징역의 스트레스를 미사와 집회로 해소하며 승화시킬 수 있었는데, 2주 넘게 집회를 나가지 못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이 또한 사정이 그리 하니 수긍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자님!

세월의 빠름이 익히 알지 못했는데, 봉사자님과 루도비코 신부님을 생각하면 엄청난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워낙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을 새삼 느껴봅니다.

사건 발생의 시간이 저에겐 지옥과 천당을 오갔던 인생의 최대 생애 주기였습니다. 하느님과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도 버티고 견디어 내는 일 또한 힘겨웠을 겁니다. 손을 놓고 싶었을 때, 울고 붙잡게 해준 저의 유일한 안식처가 교정사목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닥에 와서 느꼈던 따스함, 위로의 말, 가슴을 흥분하게 했던 성가 봉사자님의 뜨거운 불길, 웃음이 사라지는 이곳에서 웃음을 잃지 않게 했던 교정사목의 보너스 같던 집회 시간, 신부님의 귀한 강론!

외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연극과 아기자기한 봉사자님이 마련한 특별 보너스 등...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사랑으로 수용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 위원회 신부님들 이하 봉사자님들께 감사와 공경을 표합니다.

작게나마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용 생활 열심히 하고, 반성과 회개의 날들로 채워지며, 피해자의 마음도 돌아보고 고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봉사자님!

저에게 교정사목이 전해준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적게나마 불쌍하고 아프고 힘든 수용자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빌며, 추운 날씨에 봉사하려 다닐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 드림

\*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다 타 교정시설로 이송하였지만, 대모인 봉사자와 계속 편지를 나누고 있는 자매님의 안부 편지입니다. 자매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 부활을 축하합니다



## 2024년 5월 후원회원을 위한 야외미사

5월 월례미사는 후원회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야외미사로 봉헌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위해 늘 함께하시는 후원회원 및 봉사자들이 신부님과 함께 자연 속에서 뜻깊은 미사도 하시고 더불어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일시 : 2024년 5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명동 교구청 앞마당)
- ▶ 장소 : 참회와 속죄의 성당(파주) ▶ 준비물 : 편한 복장과 신발, 따뜻한 물, 모자 외
- ▶ 접수 : 4월 1일(월)~19일(금) ▶ 전화접수 : 02-921-5094 / 010-3732-5093
- ▶ 회비 : 1만원

### 1. 전화접수(성함/연락처/주민번호) 2. 실명 입금 확인 3. 접수 확정

\* 주민번호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미사 중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봉헌금이 있습니다.

## ● 행사 알림

- 4월 1일(월) 제63차 정기총회 및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4월 1일(월)~5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 교육 여주교도소 /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 4월 6일(토)~7일(일) 도봉동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 4월 15일(월)~19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 교육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 4월 22일(월)~26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 교육 서울남부교도소
- 4월 30일(화) 해밀 가족야유회



##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4/2/16~3/15)

2024년 2월~3월에는 김명자 마리아, 김이화 벨라멧다, 김진영, 민구희, 박유민 소화데레사, 염수향 데레사, 오경태, 이남순 케롤린, 이석룡 하상바오로, 이수지 안나, 이순내 아네스, 이지원 안나, 장순옥 루시아, 정군자 마리아, 정미혜, 최혜란, 최희범 가밀로, 함광숙 젤마, 황원엽 바오로, 우장산성당 강미애 안젤라 외 100명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순이 미카엘라, 김연옥 헬레나, 박희양, 변애영 마리아고레피, 원인희 로사리아, 조기숙 글라라, 하석원 올리안나, 현진옥 마리아, 홍영순, 황세양 임마폴라파, 목동성당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우장산성당 구연옥 유스라 외 11명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방법

###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신청’을 클릭 및 오른쪽 ‘모바일 후원신청 QR코드’로 신청

###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기 / 후원사업부(02-921-5094)

### 3. 직접 은행에 신청하기

- 직접 자동이체 신청 시 후원사업부(02-921-5094)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7면 ‘후원 계좌’로 이체 등록
- 은행 방문 시 준비물(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후 아래 계좌로 이체 신청



▶ 모바일 후원 신청